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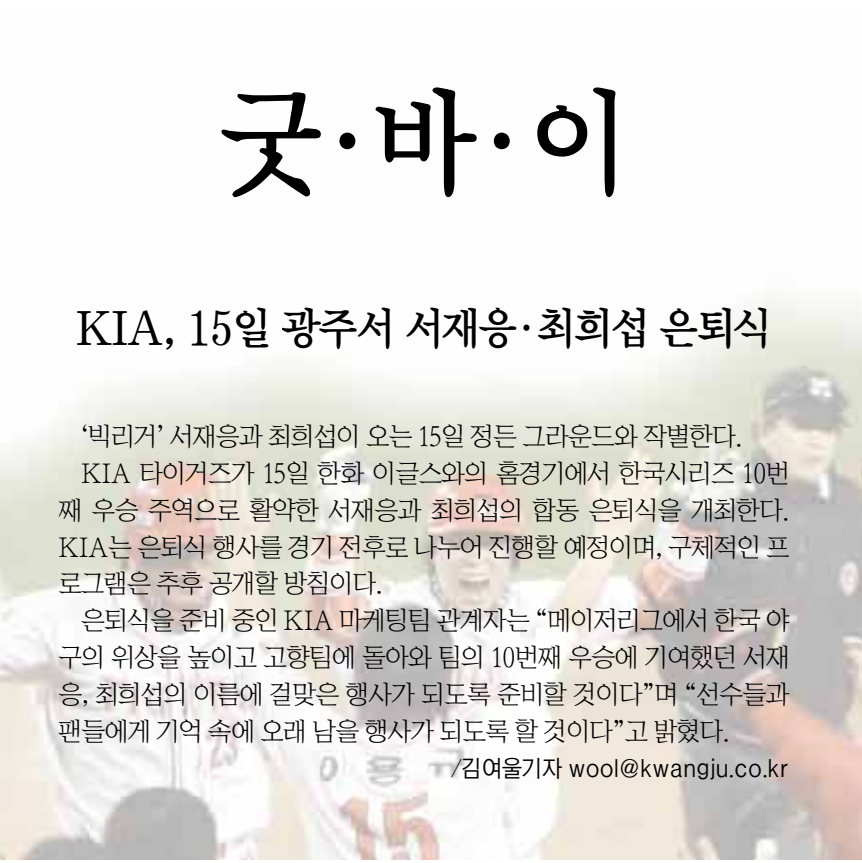
굿·바·이

KIA, 15일 광주서 서재응·최희섭 은퇴식

‘빅리거’ 서재응과 최희섭이 오는 15일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한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서재응과 최희섭의 합동 은퇴식을 개최한다. KIA는 은퇴식 행사를 경기 전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은퇴식을 준비 중인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고향팀에 돌아와 팀의 10번째 우승에 기여했던 서재응, 최희섭의 이듬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며 “선수들과 팬들에게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헥터 특명 위기의 팀을 구하라



등판 앞당겨 오늘 롯데전·8일 넥센전 선발 타이거즈 첫 고척돔 경기...투·타 적응 관전

‘빅 리거’ 헥터가 위기의 마운드 수성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주중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이어 주말 넥센 히어로즈의 새로운 안방인 고척스카이돔으로 가 승을 올리기에 나선다.

광정철을 시작으로 임준혁, 심동섭, 윤석민, 김윤동, 한승혁이 나란히 부상일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상이 걸린 KIA 마운드. 헥터가 마운드 수성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맡아 가장 먼저 출격한다. 출발상 여파로 앞선 로테이션보다 하루 앞당겨 헥터가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3일 화요일에 등판을 하게 되면 8일 일요일 경기까지 책임져야 한다.

손발이 맞지 않는 공격에 선발진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헥터가 중책을 맡게 됐다. 팀도 팀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욕심 나는 경기다. 한국 무대에서의 첫 시즌을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세 경기에서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넥센전 5이닝 6실점, 삼성전 4.2이닝 8실점(7실점)의 최악의 피칭을 하며 자존심을 구웠던 헥터는 지난 4월28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다시 ‘특급 외국인 선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8이닝 5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 연장 승부 끝에 경기가 2-3개로 끝 나면서 어렵게 돌아서야 했지만 우려를 덜어낸 완벽 피칭이었다.

‘잇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즌 초반, 갑작스러운 부상이 일어났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마운드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임기준·정용운 두 좌완이 안정적 있게 불펜을 지탱해주고 있다. 지난해 선발로도 역할을 맡았던 임기준은 컨트론클을 가다듬으면서 신뢰를 쌓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스타트를 잘 끊으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다. 군복무와 부상으로 오랜 시간 마운드를 떠나있던 정용운도 두 경기에서 서 관장은 모습을 보여줬다. 부상으로 시즌 구상에서 빠져있던 이름이지만 정용운은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이며 코칭스태프의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타선의 집중력이다. 나지완이 규정타석을 채우지는 못 했지만 필·나지완-이범호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가 3할 타자로 자리를 하고 있다. 0.281의 타율에 머물고 있는 김주찬도 16타점으로 팀

내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페이스가 주춤하지만 김주찬은 4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타선의 힘에 실어줬다. 그럼에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득점력이 시원찮다. 23경기에서 나온 희생플라이는 5개, 타오르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주루 실수도 눈에 띄었다.

주중을 만나는 상대는 올 시즌 KIA가 유일하게 워닝 시리즈를 만들었던 롯데다. 앞선 3경기에서 롯데 투수들로부터 뽑아낸 점수는 무려 32점이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화력 재점화에 나서야 한다. 주말에는 낯선 환경이라는 숙제까지 동시에 풀어야 한다. ‘호랑이 군단’의 첫 고척스카이돔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범경기에서도 방문하지 못했던 낯선 구장, 특히 수비에서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우려되는 경기다.

터질 듯 터지지 않는 방망이 탓에 5월 첫 경기는 1-4패로 끝났다. 양현종의 첫 승도 실패로 끝났다. 1구1구에 집중하면서 5월 승리 행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코몽’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열리는 이날 시구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코몽’이 한다. 코코몽은 EBS1 채널에서 방영 중인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을 대표하는 빨간 원숭이 캐릭터다. 코코몽은 시구뿐만 아니라 응원에 참여하고 포토타임을 갖는 등 챔피언스필드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된다.

오후 1시30분부터 그라운드에서 선수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가 진행된다. 명랑 운동회는 어린이와 선수가 조를 이뤄 각 베이스를 도는 ‘다이아몬드 계주’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날 경기 장내 아나운서도 어린이가 맡는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가 경기에 나서서



어린이날 챔피언스필드서 코코몽 만나요

명랑 운동회 등 다채...월드컵경기장서도 끝나무 축제

선수들을 소개한다.

“더 뉴 응원단” 치어리더는 만화 캐릭터 코스튬 의상을 입고 특별 공연을 펼친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그라운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된다. 외야 그라운드를 개방(선착순 500명)해 기념 사진 촬영과 캐치볼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입장 어린이(선착순 1000명)에게는 해태제과가 후원한 ‘홈런볼 인형’이 제공된다.

광주 FC도 오후 4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6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어린이를 위한 끝나무 축제를 펼친다.

이날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어른과 동반 입장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 기준은 초등학교 1~6학년까지이며, 어른(성인)은 매표소에서 티켓 구매시 어린이 무료티켓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가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4전 135기’ 신지은 LPGA 텍사스 슛아웃 우승

신지은(24·한화)이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텍사스 슛아웃(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은은 2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파71·646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하며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신지은은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다.

2011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동한 신지은은 이 대회 전까지 13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이 없다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상 기록으로는 131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LPGA 투어는 신지은이 투어 데뷔 이전인 2008년과 2010년 US오픈에 출전했던 횡수 등을 더해 이번이 135번째 대회 출전이라고 최종 집계했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3타로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4위였던 신지은은 이날 보기가 없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며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신지은은 1992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8살 때인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LPGA 투어 등록명은 영어 이름인 제니 신이다. 이 대회 전까지 2012년 HSBC 챔피언스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3월 KIA 클래식 공동 4위에 오른 바 있다.

신지은은 시즌 상금 순위 9위(40만 9211 달러)에 올랐고 세계랭킹 역시 38위에서 24위로 오르게 됐다.

허미영(27·하나금융그룹)과 양희영(27·PNS)이 나란히 12언더파 272타로 신지은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2016 LPGA 한국(계) 우승자

신지은 (한국)	텍사스 슛아웃 (130만 달러)
노무라 하루 (일본)	호주여자오픈 (2.21)
이민지 (호주)	롯데 챔피언십 (4.17)
리디아 고 (뉴질랜드)	기아 클래식 (3.28)
김세영 (한국)	JTBC 파운더스컵 (3.21)
장하나 (한국)	코오 챔피언십 (2.9)
김효주 (한국)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2.1)

마쳤다. 필러는 이날 2타를 잃고 12언더파 272타, 허미영과 함께 공동 2위가 됐다. 최나연(29·SK텔레콤)과 지은희(29·한화), 김세영(23·미래에셋)이 나란히 7언더파 277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 이머리(27·NH투자증권)는 4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6언더파 278타,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5언더파 279타로 공동 13위다.

연합뉴스

이용대-유연성 亞 배드민턴 선수권 2연패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이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2년 연속으로 제패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유연성은 지난 1일 중국 우한 우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4위 리진후이-류위천(중국)을 2-0(21-14 28-26)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첫 국제대회 우승을 이 대회에서 달성한 이용대-유연성은 이날 승리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중국 마스터스 대회에 이어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도 이뤘다.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며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진출권을 일찌감치 확보한 이용대-유연성은 2주 연속 우승으

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상승세에 올라갔다.

전날 준결승에서 패한 여자복식 장에나(김천시청)-이소희(인천국제공항), 혼합복식 고성현(김천시청)-김하나(삼성전기)와 신백철(김천시청)-채유정(삼성전기), 여자단식 성지현(MG세마금융)은 3위로 이 대회를 마감했다.

이 대회에 끝으로 6주 동안의 국제대회 대장정을 마쳤다. 대표팀은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뉴질랜드 오픈 그랑프리 골드(3.22-27)를 시작으로 아시아배드민턴 선수권대회(4.26-5.1)등을 순회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이 다음 주 발표하는 리우올림픽 진출권을 일찌감치 확보한 이용대-유연성은 2주 연속 우승으

연합뉴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